신년칼럼

정해년을맞으며..

김 정 인
(주)에스씨에프대표이사

지난해도 국내외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기록된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대치 속에 행해진 북한의 핵 실험은 우리들에게 충격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핵 실험은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 정권이 핵 이외에는 쓸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탈북동포들의 급증과 함께 언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정권과 주변 강국들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대해 봅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세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전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APEC, NAFTA, EU 등 블록경제 가속화와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미 FTA 협상 문제도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축산을 희생하는 한미 FTA 협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축산인들은 협상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말에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 문제는 우리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올 초까지 계속되는 가금 인플루엔자 문제는 당분간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가슴에 새기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해는쌍춘년, 올해는복돼지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양돈업을 괴롭히는 4 PS, 양계, 오리업계를 괴롭히는 가금 인플루엔자도 복돼지의 힘을 빌어 멀리멀리 날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년생으로서 받거나 받을 복이 있다면 모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